양촌선생(陽村先生) "서천견록(書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주서(周書)」는 <문후지명(文侯之命)>에서 끝나는데 <비서(費誓)>로 뒤를 이은 것은 『춘추』가 노 나라 역사에 의탁한 뜻과 같다. 맹자는 "시가 없어진 후에 『춘추』가 지어졌다"고 하였는데, 이는 <서리>가 국풍으로 격이 떨어진 후 왕도를 행하는 사람의 시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주 나라가 도읍을 동쪽으로 옮긴 후로는 다시는 아(雅)가 있지 않게 되었으며 또한 『서경』도 없게 되었다.

노 나라는 주공의 나라요, 공자는 노 나라 사람이다. 공자는 전에 "노 나라가 한 번 변하면 도(道)에 이른다"고 말하였고, 또 "내가 장차 노 나라를 동쪽의 주 나라로 만들리라"고 하였다. 『서경』은 <비서>를 기록하였고, 『춘추』가 노 나라의 역사에 의탁하여 기록했다. 대개 노 나라를 지극한 도가 행해지는 나라로 변화시켜 노 나라를 동쪽의 주 나라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

희성(姬姓)의 주 나라가 동쪽으로 자리를 옮김에 열국(列國) 가운데의 한 오랑캐 나라로 되어 버렸다. 노 나라가 만약 희성의 주 나라를 계승하여 왕자(王者)가 되었다면 문왕과 무왕을 하늘과 함께 모시는 제사가 또한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공자가 어찌 노 나라에만 사사로이 편들었겠는가? 또한 주 나라가 장차 망하여 그 제사를 못 지낼 것을 마음 아파한 것이다.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는 시골에서 몸을 일으켰어도 오히려 고조의 제사를 회복할 수 있었다. 하물며 노 나라는 열국이·아닌가? 공자가 노 나라에바란 것은 주 나라를 잊지 못해서이다. 노 나라도 국력을 떨치지 못하면 주공도 쇠하는 것이다.

백익(伯益)의 후예가 날로 강대해지니 공자는 천하의 형세가 끝내 진(秦)나라에 병합되리라는 것을 대강 알았으므로 <진서(秦誓)>로 주 나라를이어서 마무리 지었다. 옛적 요·순 시절에 설(契)은 교육을 담당하는 사도(司徒), 기(弃)는 농사일을 담당하는 후직(后稷), 고요(皐陶)는 형벌을 관장하는 사(士), 백익은 산과 못을 맡는 관리[虞]였다. 이들은 모두 성인의 경지에 드는 사람들로 천하에 임금 노릇할 만한 덕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가 백규(白揆)의 자리를 맡았을 때 직과 설 및 고요에게 양보하였으나 익은 여기에 끼지 못했다. 우가 섭정하였을 때는 고요에게 양보하였으나 직과 설 또한 여기에 끼지 못했다. 우가 늙었을 때 세 사람이 먼저 죽었고 백익만 혼자 살아 있었으므로 우는 익을 하늘에 천거하였다. 이들 모두 천하에 임금 노릇할 만한 덕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우열을 또한 생각할 수 있다.

설의 후예가 상(商) 나라를 세우고, 직의 후예가 주(周)나라를 세웠으니 이들 모두 우를 이어서 천하를 소유하였다. 고요의 덕은 다른 세 사람보다 뛰어났지만 후손들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고요는 형벌을 맡으면서 "형벌을 쓰되 형벌이 없는 경지에 이를 것을 기약하여 백성들이 중용의·도에 맞는다"고 비록 말하였으나 그 마음 또한 법을 집행함에 집착하였을 따름이다. 인후(仁厚)로써 가르친 직과 설만 못하다. 그러므로 고요의 후손은 천하를 가지지 못하였다. 백익은 우(虞)가 되어 산과 못을 태워서 불질렀다. 그것이 백성들에게 형벌을 주는 일과 비교한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백성을 가르치는 일에 비교한다면 또한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

공자는 지난 일을 가지고서 앞날을 추측하여 백익의 후손인 진 나라가 장차 천하를 합병할 것과 산을 불지른 업적도 반드시 상·주의 인후한 은택만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서경』을 편찬하는 마지막 부분에 간곡히 노 나라에 대한 기대를 걸고 차마 갑자기 진(秦) 나라를 가지고 주(周) 나라를 잇지는 않았다. 공자가 천하를 걱정하고 후세를 염려하는 마음이 지극하다. 이로써 진 나라가 분서갱유(焚書坑儒)의 화가 있고 왕위를 전한 것도 매우 단명했음을 알 수 있으니 또한 산을 불지른 일에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아! 성현의 마음이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밝다. 그가 처한데 따라 각기 당연한 법칙을 다하였으니 이는 모두 천리의 바름이오, 한 터럭의 사사로운 뜻도 없다.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위주로 한 자는 반드시 보호하고 온전히 하기를 바라고, 형벌이나 산림소택을 맡은 자는 반드시 제거하고자한다. 마음을 두는 것이 같지 않으니 남긴 은택이 매우 다르다. 비록 고요의 분명하고 진실된 형벌과 백익의 해를 제거하고 이로움을 일으키는 일도 오히려 또한 이와 같거늘, 하물며 위엄을 함부로 부려 하늘이 내려준 생명체를 살육하고 함부로 죽이는 자에 있어서랴? 계책을 남기고 법을 만들어 후손에게 전하는 후세의 임금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보고서 또한 경계해야함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몇 마디 언급하고 아울러 논한다.

〈다음호에 계속〉

충의공(忠毅公) 권응수(權應銖) 장군의 창의와 공업 (13)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선조 39년(丙午;1606년)은 충의공이 61세로서 정월에 병을 이유로 겸대겸명직(兼帶兼名職;겸임겸직)을 사직하고 쉬었는데 8월에는 왜적의 트집이 생긴 고로 경상도 방어사로 임명되었다. 10월에는 성주에 순도(巡到)하여 한강(寒岡) 정구(鄭逑, 1543-1620)를 예방하였다. 인하여 연해의 각 고을의 병선과 군민을 점검하였다. 이해에 지산(芝山)에 서재를 수축하였다. 서재는 신녕 고을 서쪽 10리쯤의 귀수(龜水) 위쪽에 있었다. 이때 고을에는 자제들이 배우고 서책을 갈무리할 곳이 없었으며 병화를 겪우 벗어난 상태여서 세속이 황폐하고 학문에 힘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를 개탄한 공은 후진을 흥려(興勵) 시킬 뜻으로 땅을 고른 끝에 지산 아래 서재를 영건하고 편액을 걸어 '백운재(白雲齋)'라 하였다. 그리고 서적을 구입하고 기용(器用)을 비치하였으며 거기에 속한 전답과 토지를 내어 영구히 지켜나갈 계책을 세우고 노유(老儒)를 맞이해 향당의 여러 자제를 가르치고 강습시키게 하였다. 그러면서 공이 때때로 화양동으로부터 지팡이를 짚고 와서 특별히 장려하고 신칙하였다. 충의공이 처음에 지선에 복거(卜居)하려는데 꿈에 의모가 심히 기이한 한 신인(神人)이 나타나 공에게 두 번을 절하더니 이르기를, "효자, 효자시로다." 하고 또 가로되, "반드시 후일에 공을 공경하는 집이 이곳에 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곳이 뒤에 충의공을 제향하는 귀천서원(龜川書院)이 되었다.

선조 40년(丁未;1607년)에는 충의공이 62세로서 정월에 관직을 내놓고 체직하고 귀향(遞歸)하였다. 왜적의 근심이 평파(平罷)되고 변방의 방비도 이루어진 때문이었다. 2월에는 소명을 받고 올라가 오위도총관을 겸직받고 중삭연(仲朔宴)을 하사받았다. 임금이 이때 모든 공신을 불러 술을 내리며 함께 즐기고 연회에 참예한 관원과 더불어 그림을 그리게 하여 그 관작 성명과 함께 병풍을 만들어 나누어 하사하였다. 그 병풍을 충의공은 댁에 소장하게 되었다. 3월에는 평안도 병마수군절도사로 제수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사면하였다. 4월에는 북병사(北兵使 : 함경도 병마사는 남북 둘-남병사와 북병사-로 갈림)에 다시 차출되었으나 병으로 사면하고 즉일로 고향으로 내려왔다. 12월에는 공조판서에 제수되었는데 임금이 경상감영에 명하여 식물을 하사하였다.

선조 41년(戊申;1608년) 2월에는 선조가 승하하자 상경 예궐하여 곡하였다. 4월에는 남영장(南營將)을 겸했다가 5월에 병으로 사직하고 돌아왔다. 7월에 병환이 위독하자 6일(庚寅日)에 임금(광해군)이 전의(殿醫)를 보내 병을 진찰케(珍病)케 하였다. 그러나 13일(丁酉日) 진시(辰時)에 한양의 여사(旅舍)에서 고종(考終)하니 수가 63세였다. 병환이 위독하자 충의공이 이르기를, "대장부가 품은 과혁지원(裹革之願 : 무인[武人]이 전장에서 생을 마쳐 시신을 말가죽에 싸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다하였도다."라고 하였다. 부음의 소문(訃聞)을 듣자 임금이 진도(震悼)하여 조회를 폐하고 철시(輟市)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부의를 내려 치제(致祭)하였다. 임금은 15일(己亥日)에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을 보내 조문케 하고 26일(庚戌日)에는 예조의 낭관 이후(李厚)를 보내 치제하였다. 29일(癸丑日)에는 아들 구(逑)가 영구를 받들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10월에 영천군의 서쪽 천곡(泉谷)의 건좌(乾坐) 언덕에 안장하였다. 장례날에는 원근에서 모여 뒤를 따르는 자가 수백에 달했다.

충의공의 졸(卒)후 16년만인 인조 2년(甲子;1624년) 정월에 증직이 추사(追賜)되어 효충장의협력선무공신(效忠仗義協力宣武功臣)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화산군(花山君)으로 되었다. 그리고 다시 졸후 77년 뒤인 숙종 11년(乙丑;1685년) 10월에 지산(芝山)의 귀천서원을 영건하였다. 신녕 사람 김상건(金尙健)·조취하(曺就夏)와 영천 사람 전오행(全五行)·정세윤(鄭世胤) 등 향당의 사대부들이 공의 덕을 추모하여 지산은 충의공이 스스로 복거한 곳이므로 이곳에 원우(院宇)를 세우자고 도내에 통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듬해 병인년(1686년) 겨울에 서원이 이루어지니 11월 정유일에 위판(位版)을 봉안하였다. 그리고 다시 5년 뒤인 숙종 17년(辛未;1691년) 7월에는 충의공(忠毅公)으로 시호가 내렸다. 시법(諡法)은 '몸을 위태롭게 하여 임금을 받들었으니 충이요(危身奉上曰 忠)' '강직함으로 능히 결단을 내렸으니의(强而能斷曰 毅)'라 하였다. 이보다 2년 앞선 숙종 15년(己巳;1689년) 겨울에 충의공의 증손 심형(審衡)·복형(復衡) 등이 비로소 시장(諡狀)을 올리고 역명지전(易名之典;이름을 바꾸는 은전으로 시호를 내림을 말함)을 청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왕명이 내리고 다시 2년 뒤인 숙종 19년(癸酉;1693년) 9월 계해일에 이조의 낭관 김문하(金文夏)가 왕명을 받들고 내려와 선시(宣諡)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9)

논 어 해 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제3편 팔일(八佾)

제13장

왕손가[王孫賈]가 물었다. "'방 안의 아랫목의 잘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부뚜막이 잘 보이도록 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습니다."

[원문]

王孫賈問曰 與其媚於奧로는 寧媚於조라함은 何謂也니이까 子曰 不然하다 獲罪於天이면 無所禱也니라.

[왕손가문왈 여기미어오로는 영미어조라함은 하위야니이까 자왈 불연하다 획죄어천이면 무소도야니라.]

[이해]

여기서 위[衛]나라 대부 왕손가[王孫賈]가 방안은 임금을 ,부뚜막은 권신[權臣]에 비유하여 임금에게 직접 통하기보다 자기에게 아부하는 쪽이 훨씬 출세 길이 빨리 열리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자는 하늘에 죄를 지으면 하늘에 빌 곳이 없다는 말로 임금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타이르는 것이다.

제14장

공자가 말하였다. "주[周]나라는 [하夏 은殷]의 두 왕조를 참고할 수 있어 그 문화가 매우 찬란하므로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원문]

子曰 周監於二代하니 郁郁乎文哉라 吾從周하리라.

[자왈 주감어이대하니 욱욱호문재라 오종주하리라.]

[이해]

공자[孔子]는 주나라가 하나라오 은나라의 문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문화의 절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나라의 예[禮]를 따르겠다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소멸되어가는 주나라의 문화를 애석해 하는 착착함이 엿보인다.

제15장

공자[孔子]가 태묘[太廟]에 들어가면 매사를 일일이 질문 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추[鄒]사람의 아들이 예를 안다고 하는가. 태묘에 들어오면 매사를 질문하는데"공자가 소문을 듣고 말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이다."

[원문]

子入大廟하사 每事를 問하시되 或曰 孰謂鄹人之子를 知禮乎아 入大廟하여 每事를 問하거니 子聞之曰 是禮也니라.

[자입대묘하사 매사를 문하시되 혹왈 숙위추인지자를 지예호아입대묘하여 매사를 문하거니 자문지왈 시예야니라.]

[이해]

물론 잘 아는 것이라도 다시 한 번신중을 기하고 행동거지에 있어 겸양을 잃지 않는 것이 옳은 도리라는 것이다. 태묘는 노나라가 하읍[下邑]이던 추[鄒]땅에 그 시조인 주공을 모시기 위해 세워 던 묘당[廟堂]인데 공자의부친 숙량흘[孰梁紇]의 동읍의 대부[大夫]를 지냈다.

제16장

공자가 말하였다. "'활 쏘는데 있어서 과녁 뚫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 함은 사람의 힘이 같지 않기 때문이니 이것이 옛 사람들의 활 쏘는 도리였었다."

[원문]

子曰 射不主皮는 爲力不同科니 古之道也니라.

[자왈 사불주피는 위력불동과니 고지도야니라.]

[이해]

힘에 의존하지 않고 덕으로 다스려지는 이상사회를 추구하는 공자의 입장에서는 완력보다 기술을 높이 평가하는 궁도[弓道]의 기풍이 아름답게 여겨졌을 것이고 세상도 그와 같이 도의가 어지러워지지 말 것을 바랐을 것이다.

제17장

자공이 새달의 초하루를 고할 적에 희생용 양을 바치는 일을 폐하려하자 공자가 마하였다. "사야 너는 그 양을 아까워하지만 나는 그 예가 아깝구나."

[원문]

子貢이 欲去告朔之餼羊하되 子曰 賜也여 爾愛其羊이나 我禮其禮니라.

[자공이 욕거고삭지희양하되 자왈 사야여 이애기양이나 아예기예니라.]

[이해]

고삭이란 년 말에 새해 열두 달의 초하루 날 간지를 적어서 제후들에게 반포하면 제후는 그것을 종묘에 보관하고 매월 첫날 희생으로 양을 바치며 새달을 고하던 고해이다. 공자 때는 의식은 폐지되고 양만을 희생으로 바치고 있었으므로 자공은 그 일을 폐기하려 했던 것인데 공자는 그나마 부분적으로 남아있던 예마저 아예 없어지는 것을 애석해한 것이다.

제18장

공자가 말하였다. "임금을 섬기는데 예를 다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첨이라고 한다."

[원문]

子[曰 事君盡禮를 人이 以爲諂也라 로다.

[자왈 사군진예를 인이이위첨야라 로다.]

[이해]

당시의 노나라는 비록 국군[國君]이 있어도 허수아비 같은 존재의 지나지 못하였고 세도가들은 임금을 업신여기고 예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으므로 이것을 개탄하는 뜻이 담겨있다.

제19장

정공이 물었다. "금이 신하를 부르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임금은 예로서 신하를 부리고 신하느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겨야 합니다."

[원문]

定公이 問하되 君使臣하며 臣使君하되 如之何이니까 孔子對曰 君使臣以禮하며 臣使君以忠이다.

[정공이 무하되 군사신하며 신사군하되 여지하이니까 공자대왈 군사신이예하며 신사군이충이다.]

[이해]

정공은 노나라 국군희종[國君姬宗]을 가리키며 공자는 군신사이에 틈이 생기고 서로 화합치 못하는 것은 예오 충성의 결여에서 벗어진다고 생각한 것이다.

제20장

공자가 말하였다. 관 저시[關雎時]는 즐겁지만 음란하지 않고 슬퍼해도 몸을 손상하지는 않는다.

[원문]

子曰 關雎는 樂而不淫하고 哀而不傷이니라.

[자왈 관거는 악이불음하고 애이불상이니라.]

[이해]

관저는 시경 국풍 주남[國風周南] 머리편의 있는 시로 선남선녀가 오매불망 그리워하다 상봉한 즐거움을 읊은 일종의 축혼가[祝婚歌]라는 순수한 감정이 적절하게 도를 넘지 않고 발로되어 있어서 예[禮]에 엄격한 공자도 노래하는 것이 무리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제21장

예공이 재야에게 사직단에 심은 나무에 대해 물었다. 자아가 대답하기를 "하후 씨는 소나무를 심었고. 은나라 사람들은 잣나무를 심었으며. 주나라의 사람들은 밤나무를 심었으니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벌벌 떨게 한 것입니다." 라 하였다. 공자가 그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미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는 법이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린 일은 간하지 않는 법이다. 이미 지나가 버렸으면 탓하지 않는 게 좋다.

[원문]

哀公이 問社於宰我하니 宰我對曰 夏后氏는 以宋이요 殷人은 以栢이요 周人은 以栗이니 曰 使民戰栗이어다 子聞之曰 成事는 不說하며 遂事는 不諫하며 旣往이면 不咎로다.

[애공이 문사어재아하니 재아대왈 하후씨는 이송이요 은인은 이백이요 주인은 이률이니 왈 사민전률이어다 자문지왈 성사는 불설하며 수사는 불간하며 기왕이면 불구로다.]

[이해]

재아[宰我]는 공자의 말썽꺼리 제자 재여[宰予]로 그 나이는 확실하지 않다. 밤나무 栗은 전율할 慄과 동음이라서 재아[宰我]가 그렇게 풀이하였을 것이나 공자는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는 굳이 탓할 필요가 없다고 완곡하게 타이르고 있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 권 혁 채 본원 종사 연구위원

○ 景行錄 에 云(경행록에 운) 坐密室(좌밀실)을 如通衢(여통구)하고 馭寸心(어촌심)을 如六馬可免過(여육마가면과)니라.

해설: (경행록)에 이르기를, "은밀한 방에서 앉았어도 마치 사방으로 통한 네거리에 앉아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작은 마음을 제어하기를 마치 여섯 필의 말을 부리듯 하면 가히 허물을 면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다.

○ 擊壤詩에 云(격양시에 운) 富貴(부귀)를 如將智力求(여장지력구)인대 仲尼(중니)도 年少合封侯(년소합봉후)라 世人(세인)은 不解靑天意(불해청천의)하고 空使身心半夜愁(공사신심반야수)이니라.

해설: (격양시)에 이르기를, "부귀(富貴)를 지혜와 힘으로 구할 수 있다면 중니(仲尼)는 젊은 나이에 마땅히 제후(諸侯)에 봉해 졌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을 푸른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한밤중에 근심하게 하느니라."고 하셨다.

참고: 격양시(擊壤詩)는 송(宋)아라 때 소옹(邵雍)이 지은 이천격양시집(伊川擊壤詩集)에 있는 시로 20권으로 되어있다.

**密..빽빽할 밀, 通..통할 통, 衢..거리 구, 馭..어거할 어..누를 어, 擊..칠 격, 壤..흙덩이 양, 詩..글 시, 尼..여승 니, 封..봉할 봉, 解..풀 해, 使..하여금 사,부릴 사, 意..뜻 의, 夜..밤 야, 愁..근심 수, 염려할 수, 슬프게 울 수.

○ 范忠宣公(범충선공)이 戒子弟曰(계자제왈) 人雖至愚(인수지우)나 責人則明(책인즉명)하고 雖有聰明(수유총명)이나 恕己則昏(서기즉혼)이니 爾曹(이조)는 但當以責人之心(단당이책인지심)으로 責己(책기)하고 恕己之心(서기지심)으로 恕人(즉불환부도성현지위야)이니라.

해설: 범충선공이 자제를 경계하여 말하기를 "자신은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남을 책(責)하는 데는 밝고, 비록 재주가 있다 해도 자기를 용서하는 데는 어둡다. 너희들은 마땅히 남을 책하는 마음으로써 자기를 책하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써 남을 용서한다면 성현(聖賢)의 경지(境地)에 이르지 못할 것을 근심할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다.

참고: 범충선(范忠宣)은 중국 북송(北宋) 때의 재상으로 이름은 순인(純仁), 시호는 충선(忠宣)으로 지극히 효성스러웠으며 인종(仁宗)때의 명신 범중암(范仲庵)의 둘째 아들이다.

○ 子曰(자왈) 聰明思睿(총명상예)라도 守之以愚(수지이우)하고 功被天下(공피천하)라도 守之以讓(수지이양)하고 勇力振世(용력진세) 라도 守之以怯(수지이겁)하고 富有四海(부유사해)라도 守之以謙(수지이겸)이니라.

해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총명하고 생각이 뛰어나도 어리석은 체하여야 하고 功(공)이 천하를 덮을만 하더라도 겸양하여야 하고 용맹이 세상에 떨칠지라도 늘 조심하여야 하고 부유한 것이 사해(四海)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겸손하여야 하느니라."고 하셨다.

○ 素書에 云(소서에 운) 薄施厚望者(박시후망자)는 不報(불보)하고 貴而忘賤者(귀이망천자)는 不久(불구)니라. 물추회

해설: <소서>에 이르기를, "박하게 베풀고 후한 것을 바라는 자에게는 보답이 없고, 몸이 귀하게 되고 나서 천했던 때를 잊는 자는 오래 계속하지 못 하느니라"고 하셨다.

**참고: 소서(素書)는 한(漢)나라 때의 黃石公(황석공)이 지은 책으로 그후 송(宋)나라의 장상영(張商英)이 주(註)를 달아 펴낸 병서이다.

○ 施恩勿求報(시은물구보)하고 與人勿追悔(여인물추회)하라.

해설: "은혜를 베풀거든 그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후에 뉘우치지 말지니라." (즉, 남에게 베풀되 베풀었다는 의식도 갖지 말고 반대급부를 바라지 말라는 뜻과 같다.)

○ 孫思邈(손사막)이 曰(왈) 膽欲大而心欲小(담욕대이심욕소)하고 知欲圓而行欲方(지욕원이행욕방)이니라.

해설: 손사막이 말 하기를, 담력(膽力)은 크게 가지도록 하되 마음가짐은 섬세해야 하고 지혜는 원만하도록 하되 행동은 방정하도록 해야 하느니라." 고 하셨다.

**참고: 손사막(孫思邈)은 당나라때의 명의로 <천금방(千金方)> 93권을 저술하였다.

**思..생각 사, 被..입을 피, 勇..날랠 용, 振..떨칠 진, 怯..겁낼 겁, 睿..밝을 예, 슬기예, 讓..사양할 양, 꾸짖을 양, 聰..귀밝을 총, 謙..겸손할 겸, 素..흴 소, 본디 소, 薄..엷을 박, 厚..두터울 후, 施..베풀 시, 쓸시, 줄시, 恩..은혜 은, 與..줄여, 追..따를 추, 悔..뉘우칠 회, 邈..멀 막, 膽..쓸개 담, 圓..둥글 원, 欲..하고자 할 욕.